개방이사 선임 또 불발…조선대 왜 이러나

5개월째 '이사없는 대학' 비난 확산

내달 17일 다시 논의…성사 여부 미지수

임시이사 체제에서 22년의 노력 끝에 지난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한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조선대 이사들이 제1기 정이사 임기가 끝난 지 5개월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 이사회는 정원 9명 가운데 이미 1명이 사퇴해 8명인 상태다. 하지만 이들도 지난해 12월에서 올 3월 사이 모두 임기가 종료된 상황이어서 학교법인 조선대는 8명의 이사 중 2명을 뺀 6명만을 이사로 선임하고, 3명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임은 물론 현 이사 8명중 6명만을 재신임해야 하는 안건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사회는 오는 6월17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진을 꾸린다는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조선대는 임기 만료 이사들이 대학을 경영하는 황당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대학 운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제1기 정이사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저마다 재신임을 원한 나머지 개방이사를 포함한 2기 이사진 선임에 소극적이어서 학내외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부실대학 평가에서 주요 기준인 법정전입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임 이사회가 꾸려지지 않아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매년 법정전입금 약 60억원을 대학에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3억원 정도만을 부담하고 있다. 법정전입금 유무는 대학평가에서 5%(100%만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올해도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조선대는 자칫 부실대학의 멍에를 안게 돼 신임 이사회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학 구성원들은 관선이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20년 이상을 노력해 대학이 정상화된 상황에서 '이사없는 대학'이라는 오명은 대학 평가와 위상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교수평의회 의장이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대학 자치기구들의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한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이사들이 본인들의 자리 보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배임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하루 16개비 피우면 담뱃세 46만원 낸다

일반 근로자 세금 2배

하루 평균 16.2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성인 남성 흡연자 1명이 연간 평균 납부하는 담뱃세가 연봉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23만559원)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정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성인 남성 흡연자가 평균적으로 내는 담뱃세가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 반갑 흡연시 연간 내는 담뱃세는 28만2820원으로 연봉 2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을 상회한다.

특히 흡연 남성의 평균 흡연량인 하루 16.2개를 필 경우엔 연간 45만8169원의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수준이다.

연맹은 "세금의 1차 목적은 재정수입이고, 재정수입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돼야 한다"며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 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빗 속 모판작업 27일 전남 1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성 진원면 평촌마을에서 노부부가 비를 맞으며 모판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5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빛고을혁신학교 '시들'

장휘국 교육감 역점 사업…예비학교 신청 크게 줄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빛고을 혁신학교' 사업이 시들해지고 있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예비혁신학교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 중 5개 학교가 응모했다.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5곳으로, 지난해 9곳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혁신학교가 되려면 예비혁신학교에 먼저 지정돼 1년동안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야 한다. 학년 초 예비혁신학교를 신청해 1학기 중 심사를 거쳐 지정받고, 2학기 중 다시 서류심사와 심사위원들의 현장방문·최종 심의를 통과해야 연말에 혁신학교로 지정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수 확대와 혁신문화 전파를 위해 예비혁신학교 지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차례 했던 혁신학교 설명회를 올해 28차례로 늘렸지만 결과는 지난해보다 좋지 못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혁신학교는 18개교이며,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동명고를 제외하고 모두 공립이다. 또 상당수는 신설학교다. 기존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동문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설학교 위주로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립 중학교의 한 관계자는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무작정 전파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단 예비혁신학교 신청 접수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고 5~6개교와 협의에 나서는 등 일선 학교에 관심을 독려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수의 학교가 신청할 지 미지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멸종위기 풍란·석곡 남해안 섬에서 발견

무분별하게 남획돼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풍란(風蘭)과 석곡(石斛)의 최대 자생지가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도서지역 절벽에서 발견됐다.

풍란과 석곡은 과거 남해안 일대에 많이 서식했지만 원예종으로 인기를 끌면서 무분별하게 남획돼 현재는 각각 멸종위기종 Ⅰ급과 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발견된 풍란과 석곡은 각각 10개체군 80여개체와 8개체군 1800여개체라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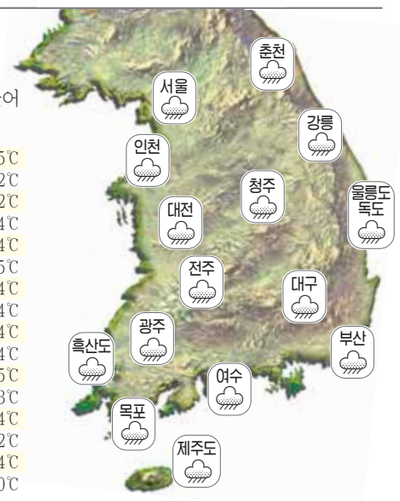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21분 해짐 19시 39분 | 달뜸 22시 40분 달짐 08시 24분

비바람 주의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 들어 점차 그치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0/25℃
목 포	흐리고 비	20/22℃
여 수	흐리고 비	19/22℃
나 주	흐리고 비	20/24℃
완 도	흐리고 비	20/24℃
구 례	흐리고 비	20/25℃
강 진	흐리고 비	21/24℃
해 남	흐리고 비	21/24℃
장 흥	흐리고 비	20/24℃
순 천	흐리고 비	19/24℃
영 광	흐리고 비	20/25℃
진 도	흐리고 비	21/23℃
전 주	흐리고 비	20/24℃
군 산	흐리고 비	20/22℃
남 원	흐리고 비	19/24℃
흑산도	흐리고 비	18/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3.0m
먼바다	남~남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3.0m
먼바다	남~남서	2.0~4.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경고	매우높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4:32 16:34	09:38 21:42
여수	11:14 23:55	05:13 17: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수)	30(목)	31(금)	6/1(토)	2(일)	3(월)
날 씨						
최저/최고	18/24	17/26	17/26	18/24	17/27	17/28

오늘도 많은 비

남해안·지리산 150㎜ 이상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28일까지 계속되겠다. 이번 주 광주·전남은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며, 주말께 전남 지역에 한차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까지 강수량은 보성 169㎜, 장흥 119.5㎜, 진도 112.5㎜ 광주 34㎜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오후 4시를 기해 나주, 구례, 장성, 화순, 고흥,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목포, 신안, 진도 등 1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보성은 이날 오후 6시 40분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28일 오후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50~10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상청은 비로 인해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번 주 낮 최고기온은 평년(23~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고 예보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

수백억 보조금 '꿀꺽'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거액을 빼돌린 서울 강남지역 어린이집 70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무자격 보육교사들을 고용해 국고보조금을 챙기고 급식재료와 간식은 물론 시설공사, 교재구매에 써야할 돈에도 손을 대 모두 300억원대를 빼돌렸다. 이들 가운데는 구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 송파경찰은 특별활동비와 음식재료비를 빼돌리고 가짜 보육교사를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정모(여·49)씨 등 어린이집 원장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허위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육교사원장 안모(여·50)씨 등 3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